Art as a Medium in Built Environment

공간과 건축에서 기능하는 미술

Part.1 미술과 기업 내러티브

Corporate Narrative



Julie Mehretu's "Mural" in the lobby of Goldman Sachs' headquarters. (AP Photo / Diane Bondareff)

Goldman Sachs New York

200 West Street

오피스 로비 안의 미술작품 중 가장 상징적인 사례를 하나 꼽으라면, 뉴욕 Goldman Sachs 본사 로비에 설치된 Julie Mehretu의 대형 회화 작품 《Mural》일 것이다. 2009년 완성된 이 작품은 약 24m 길이의 초대형 회화로, Goldman Sachs 본사를 위해 커미션되었다. 작품 안에는 도시의 지도, 무역 네트워크, 금융 시스템의 흐름, 건축 드로잉과 이동의 흔적들이 수많은 레이어로 중첩되어 있으며, 글로벌 자본주의의 복잡한 구조와 에너지를 추상적인 언어로 시각화한다. 단순한 로비 장식이 아니라, 금융 자본과 도시, 권력과 흐름 자체를 하나의 공간적 경험으로 번역한 작업에 가깝다.

하지만 《Mural》은 예술적 성취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작품이기도 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공개되었다는 점은 이 작품에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일부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이른바 아트워싱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 시스템 붕괴의 중심에 있던 글로벌 금융회사가, 거대한 자본을 통해 동시대의 영향력 있는 작가를 후원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문화적으로 세탁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Mural》은 한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벽화"라는 냉소적인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Julie Mehretu

하지만 이런 시각과 상관없이, Julie Mehretu는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작품의 시장 가치 때문만은 아니다. Mehretu의 작업은 도시, 자본, 이동, 권력, 역사적 충돌과 같은 거대한 동시대의 구조를 압도적인 스케일과 밀도의 회화 언어로 시각화해왔으며, 컨템포러리 회화가 여전히 사회와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Goldman Sachs의 《Mural》은 단순한 corporate commission을 넘어, 오늘날 기업·건축·도시·자본·문화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작품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오히려 이 작업이 동시대 사회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된 문화적 매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실제로 Julie Mehretu는 이후에도 국제 비엔날레, 주요 미술관 전시, 대형 공공 커미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해왔으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동시대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잡고 있다.



Mural

실제로 오늘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술작품을 기업의 철학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장치, 브랜드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수단, 도시와 공공을 향한 메시지,그리고 공간 경험을 구성하는 하나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Goldman Sachs의 《Mural》 역시 단순한 로비 작품이라기보다, 기업의 정체성과 동시대 금융 자본주의의 이미지를 공간 안에서 시각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의 절대적인 완성도와 압도적인 스케일, 그리고 기업·건축·도시·자본이라는 복합적인 서사를 하나의 공간 안에 강렬하게 연결해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Julie Mehretu의 《Mural》은 기업 공간에서 미술작품이 가지는 여러 화두를 작품성과 함께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Bloomberg London

3 Queen Victoria Street

Bloomberg London은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오피스 빌딩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건물은 Foster + Partners가 설계한 프로젝트로, BREEAM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성능과 에너지 효율 시스템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건물이 단지 건축 공학적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Bloomberg London은 예술과 도시의 역사, 그리고 공간 경험까지 하나의 통합된 서사로 설계하려 했던 사례이기도 하다.


Photo: James Newton

No Future Is Possible Without A Past: 과거 없이 가능한 미래는 없다

블룸버그 런던이 세워진 부지는 고대 로마 시대의 미트라 신전(Temple of Mithras) 유적이 발견된 곳이다. 따라서 블룸버그는 이 역사를 지우는 대신 예술을 통해 현재와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Olafur Eliasson의 작품 《No Future Is Possible Without A Past》이다. 이 작품은 건물 중앙의 거대한 Spiral Ramp 하부와 로비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폴리싱 알루미늄 표면이 사람들의 움직임과 빛을 반사하며 공간 전체를 하나의 감각적 경험으로 만든다. 특히 제목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다. 엘리아슨은 이 건물이 미래지향적인 오피스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대 유적 위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착안해, "미래는 과거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No Future Is Possible Without A Past"라는 메시지가 단순한 제목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 경험 안에서도 구현된다는 점이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관람자는 천장 위로 펼쳐진 미래적인 금속 표면과 빛의 반사를 먼저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건물의 상부 레벨로 이동하면, 그 동일한 표면은 이번에는 바닥의 일부로 다시 나타난다. 마치 우리가 바라보는 화려하고 미래적인 풍경조차 사실은 과거라는 기반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공간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Photo: James Newton



Photo: Olafur Elliasson Studio

Olafur Elias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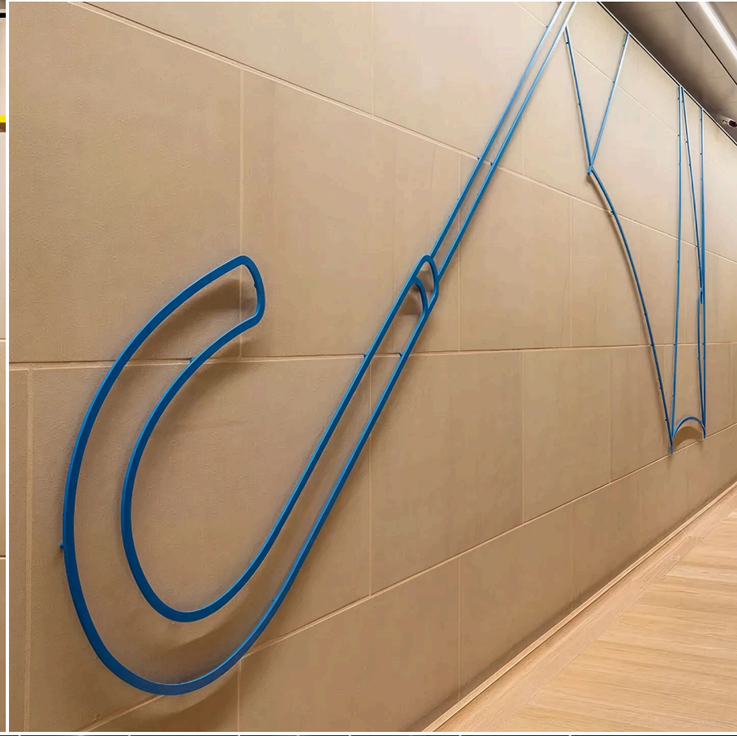
Olafur Eliasson은 아이슬란드계 덴마크 작가로, 빛·반사·물·안개·공간 지각과 같은 요소를 활용해 관람자의 감각 경험 자체를 작품으로 다루는 컨템포러리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조형물을 만드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Eliasson은 건축, 자연 현상, 움직임, 빛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를 새롭게 느끼도록 만드는 immersive 설치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작품을 독립적인 오브제로 보기보다, 공간·환경·사람의 움직임과 함께 완성되는 하나의 경험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접근은 Bloomberg London 프로젝트처럼 건축과 예술, 역사와 공간 경험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건축물 사례와도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

엘리아슨의 대표적 설치 작품은 런던 Tate Modern의 《The Weather Project》, 뉴욕 East River에 설치된 《New York City Waterfalls》, 그리고 서울 리움미술관 설치된 《Gravity Stairs》 등이 있다.

Wayfinding

건물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Michael Craig-Martin의 《Lexicon》 역시 흥미로운 사례다. 그는 시계, 문손잡이, 전구 같은 일상적 오브젝트들을 pop-colored 그래픽 형태로 확대해 건물 여러 층에 걸쳐 설치했는데, 이는 단순 그래픽 벽이 아니라 직원들의 웨이 파인딩과 기억 체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작가는 사람들이 "시계 옆에서 만나자"처럼 작품을 하나의 공간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의도했다. 또한 회의실 층에 설치된 태피스트리 작품은 디지털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화한 듯한 패턴을 통해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하며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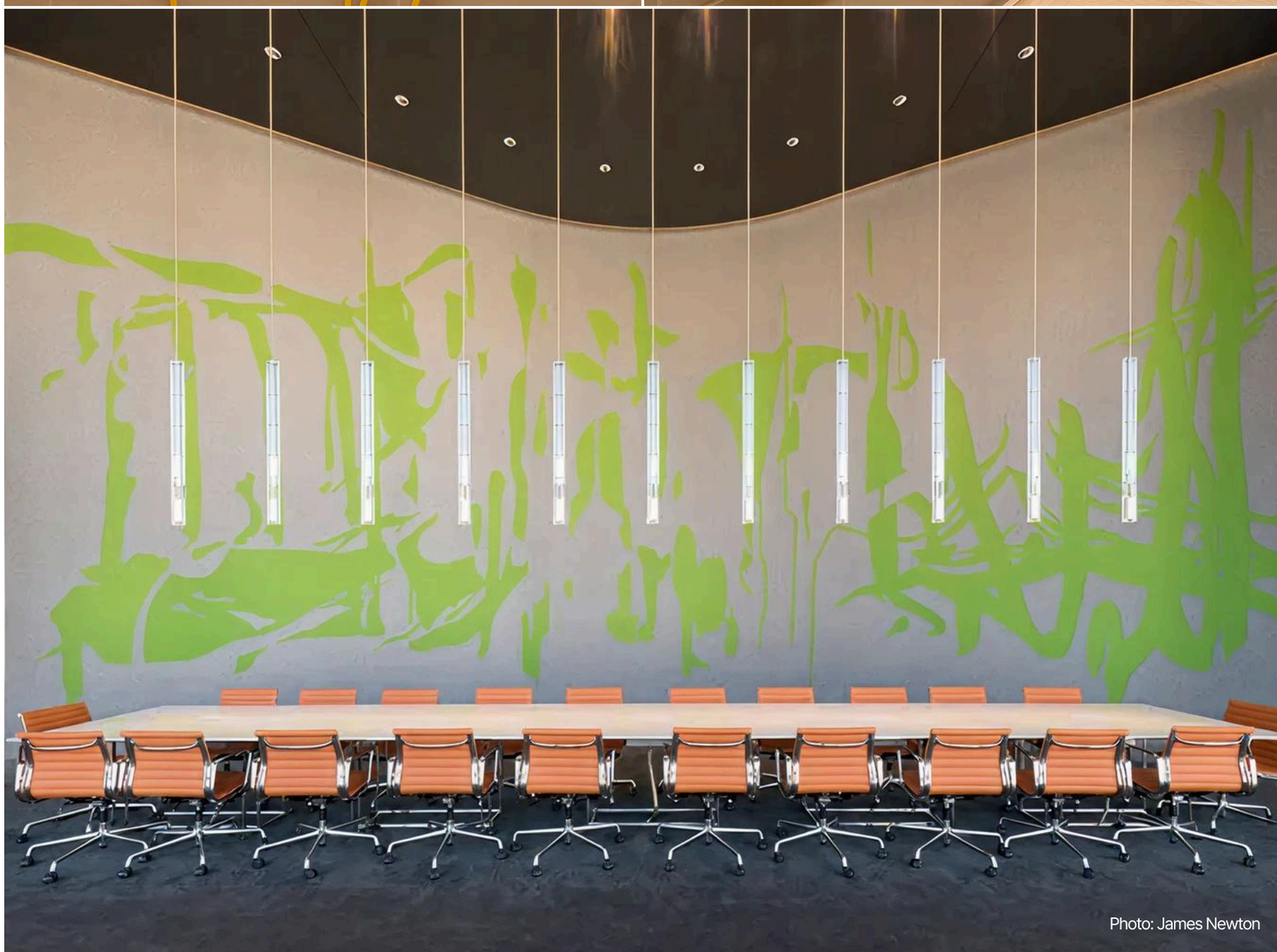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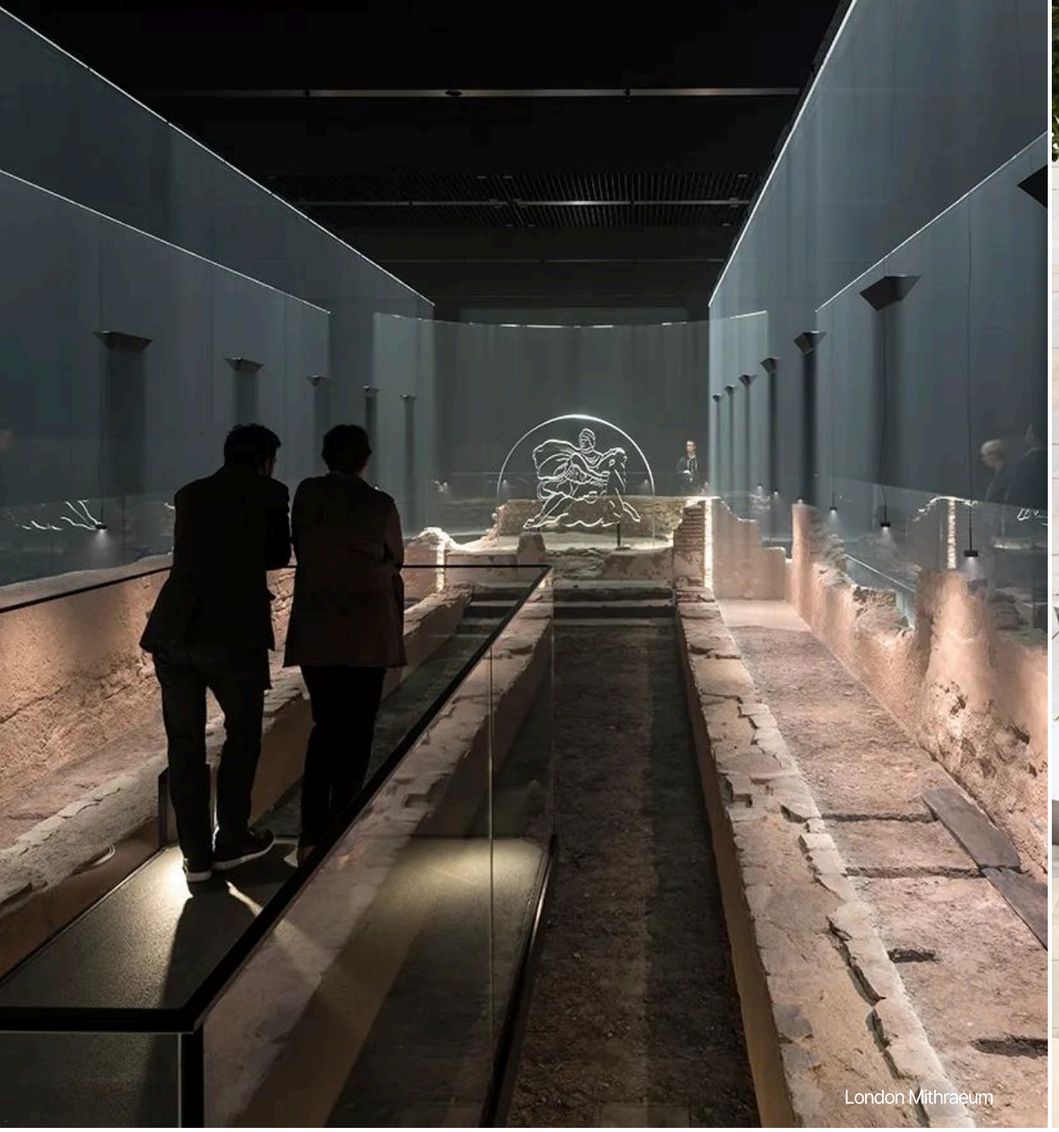


Photo: James Newton



London Mithraeum



Photo: Nigel Young/Foster + Partners

What Sustainability Means for Bloomberg

과거를 잇는 작품의 구성은 외부와 건물 하부에서도 이어지는데, 미트라 신전 유적지를 복원해 공개 전시 공간 London Mithraeum으로 만들었고, 과거 이 부지를 지나던 Walbrook 강의 흔적 역시 Cristina Iglesias 의 외부 공공 설치 작업《Forgotten Streams》를 통해 도시 안에서 다시 기억 되도록 했다. 즉, 과거 도시의 레이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건축과 도시안으로 다시 끌어들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에너지 효율이나 수치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Bloomberg London은 **건물의 '지속가능성' 이 단순히 에너지 절감을 넘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감과 지역 사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까지 포함됨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Part.1 미술과 기업 내러티브

Corporate Narrative

Closing Notes

Goldman Sachs의 《Mural》과 Bloomberg London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작품'을 설치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기업의 철학과 시대적 맥락, 도시의 역사와 산업을 하나의 내러티브 안에서 연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 공간에서 미술은 대개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같은 직접적인 시각 언어를 통해 활용된다. 하지만 미술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기업이 어떤 의도와 이야기를 가지고 공간·도시와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문화적 태도**'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위 레벨의 브랜딩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6 Strata Co., Ltd All rights reserved. Artwork images are copyrighted by the respective artists and affiliated institutions.